

힘들게 일하는 며느리 걱정해 설거지는 직접하는 90살 시아버지 (영상)

입력 : 2022.08.23 2:55 PM

지난 22일 유튜브 '휴먼다큐 사노라면' 채널에는 서로를 돈독하게 챙기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11월 25일 방송된 내용으로, 유튜브 인기 동영상에 올라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 살고 있는 시아버지 진상득(당시 90세)씨와 며느리 이승용 씨

깔끔한 성격의 시아버지는 며느리 이부자리, 옷도 일일이 정리해줬는데요. 기력은 예전만 못하지만 하루도 청소를 거른 적이 없죠. 청소를 마치면 점심까지 손수 챙겼는데요. 또 식사 후에는 밥그릇 하나도 물에 담가두는 법이 없었습니다. 일하고 돌아온 며느리가 신경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후 시아버지는 바지락을 캐러 가는 며느리를 따라나섰습니다. 혼자 보내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는 것. 며느리는 시아버지에 대해 **"젊으셨을 때는 호랑이처럼 무서우셨다"**면서도 "딸들이 질투할 만큼 유독 저한테만 잘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지병을 앓던 남편은 10년 전에, 시어머니는 지난해 세상을 떠났는데요. 자녀들 마저 도시로 나가면서 시아버지와 단둘이 살게됐죠. 며느리는 대부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퇴근이 늦은 날에도 하루 종일 심심했을 시아버지를 위해 말벗이 되어드렸는데요.

서로를 살뜰하게 챙기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사연에 네티즌들은 **"감동이네요"**, **"가슴 뭉클해진다"**,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다"**, **"꼭 부너지간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